

## 고용없는 성장의 시대에 서울의 창업활성화

### 변화하는 경쟁환경과 고용없는 성장

#### ○ 경쟁환경의 변화

- 20세기 후반 이후 경제의 경쟁환경이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다각적으로 변화하고 있음.
- 우선 ‘경제의 세계화 현상’으로, 시장의 개방과 통합을 통해 국가간 협력과 경쟁이 심화되고, 경제블록의 형성을 계기로 동북아 경제권의 중요성이 증대됨.
- 둘째, 지식이 중요한 생산요소로 부각된 ‘지식기반경제의 도래’로 지식의 학습과 활용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과거 요소투입확대에 기반한 성장의 한계에 대응한 혁신역량 제고의 필요성이 커짐.
- 셋째, IT기술에 뒷받침을 받은 ‘정보혁명의 가속화’로, 이러한 기술을 산업영역에 활용하기 위한 경영 및 조직혁신이 활발하게 전개됨.
- 마지막으로, ‘시장과 기술주기의 급격한 단축’으로, 이러한 변화로 인해 제품과 공정의 지속적 혁신을 통한 기업의 신속하고 유연한 대응, 기업간 협력과 제휴 등에 기반한 경쟁우위의 시대로 전환되고 있음.

#### ○ 고용없는 성장

- 이처럼 다이내믹한 경쟁환경의 출현과 더불어, 최근 경제정책상의 새로운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것이 이른바 ‘고용없는 성장’(jobless growth)임.

○ 고용없는 성장(Jobless Growth)

- 경제가 성장해도 고용이 확대되지 않은 경제구조상의 딜레마를 의미함.
- 경제가 1% 성장할 때, 고용이 얼마나 늘어나는가를 나타내는 고용탄성치(고용창출 효과)로 파악될 수 있음.
- 최근 한국은행은 전산업 평균 고용탄성치(취업자 증가율/실질 국내총생산 증가율)를 산출한 결과 마이너스 0.05인 것으로 발표함. 즉, 국내총생산(GDP)이 1% 증가할 때 마다 고용은 오히려 0.05% 감소한 결과를 보이고 있음.
- 제조업의 경우, 01년 -0.29, 2002년 0.08, 2003년 -0.18을 기록하고 있고, 과거 고용흡수력이 높다고 평가되던 서비스업의 경우에도 01년 0.87에서 2002년 0.52, 2003년 0.11로 크게 하락하는 추세임.

- 이와 같은 고용여건의 악화는 최근 높은 수준으로 지속되고 있는 실업, 특히 청년실업 문제로 이어지고 있음. 주지하다시피, 최근 청년실업율은 전국 8.9%(2004년 1/4분기 현재, 서울 10.3%)로 10명 가운데 한사람 정도는 실업을 경험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음.
- 더욱이 고용없는 성장이 높은 임금상승률, IT기술발전에 힘입은 노동생산성 향상, 기업의 해외이전 등에서 비롯됨을 고려해 볼 때, 이와 같은 구조적 상황은 향후 실업문제의 해결을 난망하게 하는 대목임.
- 이에, 이처럼 변화하는 경쟁환경에서 고용없는 성장과 심화되는 실업에 대한 유효한 대안 가운데 하나가 창업, 특히 유연하고 혁신적인 중소기업의 창업에 있음.
- 이하에서는 지난 몇 년간 서울의 창업 현황과 추세를 살펴봄으로써 그 가능성을 탐색해보고자 함.

서울의 고용사정, 어제와 오늘

○ 외환위기 이후 서울의 일자리

- 서울의 전체 일자리는 지난 1995년~2002년 사이에 3,874,597개에서 3,805,462개로 큰 폭의 감소추세를 보였음.

- 특히, 96년 4,046천개의 일자리를 정점으로 2002년까지 24만개 정도의 일자리가 감소하였으며, 외환위기 절정에 달했던 99년에는 사업체가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일자리가 상당히 감소하였다가 이후 조금씩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 다시 말해, 97년~99년 사이에 급격하게 감소하였던 일자리가 아직까지 회복되지 못하고 있으며, 더욱이 2002년 사업체수가 95년에 비해 3만여개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일자리는 그 증가추세가 극히 완만하여 95년보다 적은 일자리를 기록하고 있음.
- 반면, 같은 기간 수도권 일자리의 경우 같은 기간 연평균 1.2%(95년 6,676천개→2002년 7,249천개), 전국은 연평균 1.0%(95년 13,634천개→2002년 14,608천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서울과는 상당한 대비를 보여주고 있음.

[표 1] 지난 95년 이후 서울의 일자리 변화 추세 (단위 : 개, 명)

시점	서울		수도권		전국	
	사업체수	종사자수	사업체수	종사자수	사업체수	종사자수
1995	708,025	3,874,597	1,234,976	6,676,063	2,771,068	13,634,273
1996	699,797	4,045,537	1,244,867	6,963,470	2,807,802	14,006,754
1997	692,616	3,758,459	1,255,554	6,542,068	2,853,673	13,470,343
1998	663,293	3,378,615	1,215,981	6,002,081	2,785,659	12,416,558
1999	690,205	3,367,652	1,290,917	6,226,854	2,927,330	12,920,289
2000	719,536	3,574,824	1,350,089	6,657,802	3,013,417	13,604,274
2001	723,701	3,763,794	1,378,856	7,014,167	3,046,554	14,109,641
2002	735,258	3,805,462	1,429,546	7,249,289	3,131,963	14,608,322

자료 : 사업체기초통계조사보고서, 각년도.

#### ○ 고용흡수잠재력이 약화된 서울

- 이와 같은 고용추세 변화는 당시 기업들의 위기대응 전략의 일환으로 전개되었던 “수량적 구조조정”에 기인한 바 크며, 이외에 이전부터 진행되던 지식기반서비스업으로 산업구조의 전환과 기업의 소규모화·

유연화, 그리고 2000년대 초반 경기침체 등의 요인에도 영향을 받음.

- 이렇듯, 서울의 일자리 변화에 나타난 추세는 앞서 언급된 ‘고용없는 성장’과는 다소 다른 차원이긴 하지만 고용여건상의 구조적 제약과 이에 따른 실업문제의 구조적 심화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는 대목임.

## 서울의 창업, 그 현황과 추세

### ○ 서울의 창업 현황

- 96년 이후 서울의 일자리 절대 감소와는 별개로, 고용없는 성장의 시대에 실업문제의 유효한 대안인 창업과 관련하여, 서울은 지난 95년 이후 상당한 변화를 경험하였음.
- 여기서, 사업체 통계를 활용, 창업률을 통해 서울의 창업 실태를 살펴볼 것인데, 이 경우에 창업률은 매년 「사업체기초통계」 원시자료에서 당해연도 창업한 사업체를 통해 파악될 수 있음.

$$\bullet \text{ 창업률} = X_i\text{년에 창업한 업체수} / X_{i-1}\text{년 총사업체수}$$

※ 사업체통계상으로 폐업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순창업률을 의미하지는 않음

- 서울의 창업률은 지난 95년 13.8%를 기록한 이래, 2002년 19.1%에 이르기까지 전반적으로 증가추세를 나타내고 있음.
- 특히, 98년까지 완만한 증가를 보이던 창업률은 IMF 외환위기가 정점에 이른 99년과 2000년에 각각 16.7%, 20.4%를 보여, 당시 직장내 구조조정에 따른 일자리 상실의 대안으로서 활발한 창업분위기를 읽을 수 있음.

[표 2] 서울시 창업률 변화 추이(1995~2002년)

연도	1995년	1996년	1997년	1998년	1999년	2000년	2001년	2002년
창업체수(개)	90,252	93,200	93,700	96,871	110,473	140,946	111,953	137,931
창업률(%)	13.8	13.2	13.4	14.0	16.7	20.4	15.6	19.1

자료 : 통계청, 사업체기초통계 원시자료

- 한편, 이들 창업 가운데 85%는 5인 미만의 소규모 수준이고, 50인 이상의 규모를 가진 업체는 0.2%로 극히 미미한 수준을 나타내고 있음.
- 이 경우에, 소규모 업체의 창업은 기업내 구조조정과정에서 이전 직장으로부터 이탈된 인력의 자영업으로의 대체에 따른 결과인 바, 불확실한 시장환경에 적응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기 쉽고 기업의 생산율도 낮을 수밖에 없음.
- 이는 매년 상당수의 창업에도 불구하고 1995~2002년간 일자리가 절대적으로 감소했다는 사실에 반영되어 있으며, 따라서 이들 창업을 놓고 지속가능한 순일자리 창출을 기대하기가 어려운 실정임.
- 규모가 큰 창업의 경우에는, 전혀 새로운 법인의 신설이기보다는 기존 업체로부터 분리·신설, 합작이거나 업종전환 및 사업명의 변경일 가능성이 높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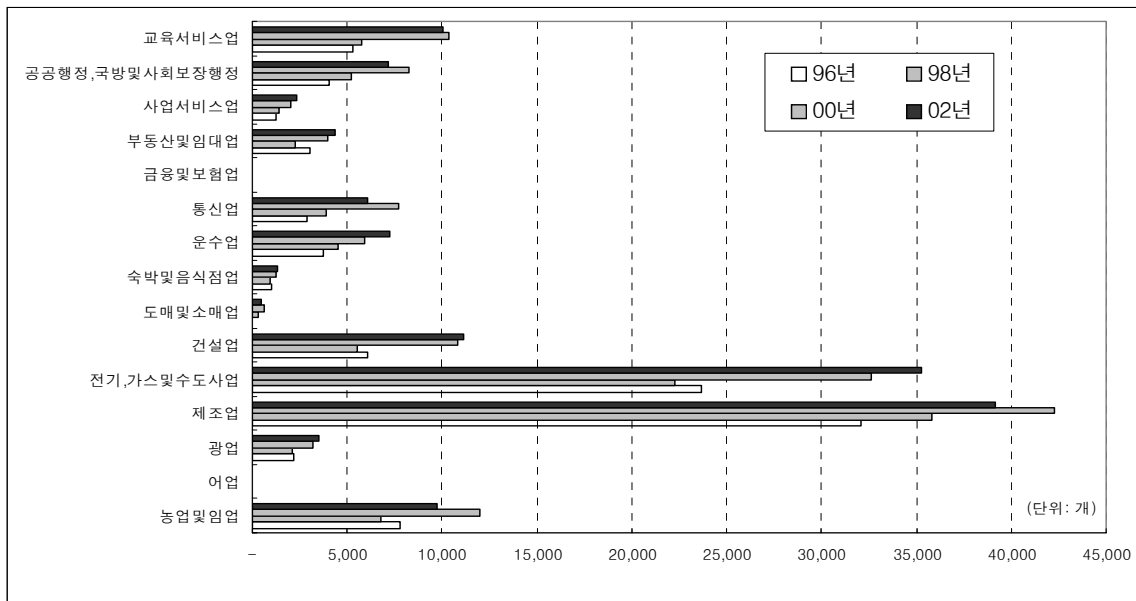
[표 3] 기업규모별 창업 현황(1995~2002)

연도	1	2~4	5~9	10~49	50~99	100이상	총계
2002	46,437	70,938	14,363	5,751	292	150	137,931
2000	47,875	69,463	15,364	7,634	399	211	140,946
1998	35,816	49,605	7,964	3,197	173	116	96,871
1995	33,939	43,659	8,488	3,865	196	105	90,252

자료 : 사업체기초통계 재가공

○ 소비자서비스업을 중심으로 한 활발한 창업

- 창업률은 업종별로도 일정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물적 자본투자가 크지 않은 서비스업이 전체의 80%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 이 업종을 중심으로 창업이 비교적 활발함을 확인할 수 있고, 향후 서울 경제의 서비스화를 더욱 심화시킬 것으로도 예상할 수 있음.
- 서비스업 창업 가운데 50~60%는 도·소매업과 숙박·음식업이 차지하고 있으며, 오락, 문화 및 운동관련 서비스업과 기타 공공 수리 및 개인서비스업이 4~8% 수준에 이르고 있음.
- 전체적으로 말해, 소비자서비스업을 중심으로 한 창업이 활발한 반면, 통신업, 금융·보험업이나 생산자서비스업(부동산임대업과 사업서비스업)은 비교적 낮은 수준의 창업율을 유지하고 있음.
- 제조업의 창업률은 예상한 대로 서울경제 전반의 제조업 수축과 서비스화 추세를 반영하여 95~2002년 사이 10% 미만 수준을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나, 이 분야의 창업은 저조한 편임.
- 서구 선진국 및 선진도시에서 경제의 지식집약화, 즉 생산자서비스를 중심으로 한 활발한 창업과 이들 부문의 생산성 향상을 통해 창업과 산업경쟁력을 동시에 도모할 수 있었음을 고려해 보건대, 이들 업종에 대한 창업기반의 강화가 중요한 정책과제라 하지 않을 수 없음.



[그림 1] 서울 주요 업종별 창업 추이변화(업체수, 1994-2002)

## 결론 및 제언

- 지난 95년 이래 사업체의 절대 감소와 최근 사업체의 완만한 증가 속에서도 매년 중소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창업이 활발함.
- 이들은 성장과 고용의 동반 발전의 신화가 깨지고 있는 오늘날, 경제의 활기와 고용여건을 개선할 수 있는 유력한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음.
- 특히, 기술력과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한 벤처기업의 창업은 경제성장과 고용창출의 원동력이 될 수 있음.
- 이에, 기업가정신을 고취하고 창업을 활성화할 수 있는 다각적인 지원책이 확립되어야 할 것임.
- 특히, 서울의 경우 이미 산업적 기반이 고도화되어 있고, 새로운 지식과 역량만 있으면 창업할 수 있는 지식집약적 서비스업의 창업을 활성화할 수 있는 정책기반을 조성할 필요가 있음.

-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지원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할 것임
  - 전방위적인 창업교육체제 구축, 창업보육기능의 강화 등 다양한 창업기회의 제공과 지식집약적 혁신형 창업의 촉진.
  - 창업관련 행정업무의 단일화, 창업사업승인제도의 간소화(가령, 일괄의제처리의 확대) 등 창업 절차에 수반되는 각종 행·재정 편의 제고.
  - 창업전문 교육기관의 확충, 창업정보망 구축, 창업단계별로 특화된 기업가 양성 및 교육 프로그램 개발·운영 등 창업인프라 확충.
  - 창업자금 지원규모 확대와 지원방식 다양화, 신용보증의 확대를 통한 창업자금 지원제도의 강화.
- ※ 특히, 무형자산이 중심을 이루는 지식집약적서비스업의 경우, 기업의 가치평가와 신용 등에서 불리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적극적인 보완이 마련되어야 함.
- 창업초기에 창업기업 경쟁력 진단 프로그램 운영, 기업의 생산율을 제고할 수 있는 프로그램 마련 등 창업 단계별로 특화된 수요지향형 창업지원체제 구축.
- ※ 이와 함께, 청년 창업을 활성화할 수 있는 별도의 창업지원프로그램이 다각적으로 강구되어야 할 것임.
- 마지막으로, 중소창업기업의 우수한 기술력과 역량이 시장에서 입증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유통·판로지원책도 확충되어야 할 것임.

정병순 · 서울시정개발연구원 부연구위원  
jbs66@sdi.re.kr